

재학생에겐 어려운 정시 합격, 수시와 병행한 수능 준비 덕분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정시 ①



최현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1학년
(서울 단대부고 졸업)

정시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 합격한 최현수씨는 당초 정시가 주력 전형은 아니었다.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된 경우가 많고 학교 내신 시험이 수능의 바탕이 돼 수능 준비를 병행했던 것. 기대했던 수시 서울대 일반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를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으나, 수능은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와 고려대 학업우수전형과 연세대 활동우수형 면접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자신감이 '불수능'에서도 단단한 멘탈을 유지하게 해 좋은 수능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수능은 재수생이 선전한다지만, 재학생으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현수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com

Q. 종합전형에 주력하면서도 수능을 병행한 이유는?

고등학교 입학 후 3월 첫 모의고사에서 99.8%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1학년 1학기 첫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으로 아쉬움이 많았어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아 내신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본부터 심화, 기출문제까지 꼼꼼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정시로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수능은 보험이었어요.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준비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은 충실한 학생부가 불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저 기준만 맞춰도 수시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수능 날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했어요. 서울대 정시에서의 학생부 평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Q. 학교 성적은 어떻게 관리·유지했나?

학기중에는 내신 공부와 학교생활에만 전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 KMO(한국수학올림피아드)를 준비했었는데 그때부터 쌓은 수학적 사고력과 학습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수학은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꾸준히 공부했어요. 1학년 1학기에 평균 2등급 중반이었던 성적을 2학년 때 1등급 중반

2022학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에 정시전형과 추천형 교과전형이 급증하면서 대입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형별·대학별 특징과 선배들의 합격 비결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_편집자

선배의 선택 과목 & 학습 팁

TIP

내신 “흥미·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종합전형에 주력했기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진로 목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모두 이수했고 가장 자신 있는 교과로 좋은 등급을 확보했다. 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잘하는 주요 교과가 있으면 공부 시간을 배분할 때 효율적이다. 과탐은 <물리학 I·II> <화학 I·II>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이수했다. 과학은 수학만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전공의 기초가 되므로 독서와 탐구 활동으로 과목별 지식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 점이 진로 연계 권장 과목 이수와 정성 평가를 통해 서울대 정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수능 “고득점 가능한 과목 선택”

수능에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과탐은 <화학>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은 적성에도 맞고 고득점에도 유리해 일찌감치 결정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과탐은 <물리학 I·II>는 흥미를 못 느꼈고 <생명과학 I·II>는 유전 부분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서울대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 <물리학 I·II>와 <화학 I·II>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 부분도 과목 선택에 참고했다. 3학년 여름방학에 과탐 II 과목으로의 변경을 잠시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공부해왔던 과목에서 만점을 받자는 각오로 바꾸지 않았다.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2번의 내신 시험은 등락이 있었지만 매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균형 있게 최선을 다한 것이 주효했어요.

Q. 수능 대비는 어떻게 했나?

수능은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내신 시험이 난도도 높고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 치열한 경쟁이어서 학기중엔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신으로 수능 과목을 꼼꼼히 공부하다 보니 2학년 까지 모의고사는 큰 기복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죠. 3학년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했는데 매일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국어·수학·영어·탐구 2과목을 순서대로 모두 공부했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 분석과 오답 관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의문점을 바로 해결했고 끝까지 모르는 부분은 복습 동영상으로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충분히 공부한 후 사설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넘어갔고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시험 시간 운영 리뷰와 오답 노트를 작성했고 수능 날까지 감을 잃지 않도록 참고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조언해준다면?

내신이나 수능에서 최대치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은 1년에 단 한 번, 하루에 결판나는 시험이라 긴장도가 매우 높습니다. 각 과목을 독립된 시험이라 생각하고 앞 과목의 결과가 다음 과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각 교시 시험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절대 앞 과목 결과를 복기하지 않으려 했고 미리 준비한 다음 과목 문제를 풀어보며 다음 시험만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 내신, 학생부, 학교생활, 모의고사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